

## 放火小考

서양정신의학에서는 방화광을 Pyromania라고 하는데 희랍어인 Pyro(불)와 mania(狂)에서 따온 단어이다.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불이 타는 것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두고 규정한 말이다.

그들은 불을 지르기 전에 굉장한 긴장을 쌓아놓고 불이 질러지면 강렬한 기쁨과 긴장해소를 느낀다. 충동을 못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불지를 준비를 착실히 하고 그들은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고 한다.

통계적 수치는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으나 대강, 충동장애(衝動障礙)는 다른 증상에 비해 적은 편이다. 여기서는 불질러서 이득을 보자는 이를테면 보험을 타기 위해서 불지르는 예들은 제외된다.

넓게 얘기해서 충동으로 불지르는 예와 2 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불지르는 사람을 빼고나면, 말하자면 마누라와 싸우다가 화를 못이겨 충동적으로 불지르는 사람과 보험금 타려고 불지르는 사람을 빼면 대강,

1. 근본적으로 정신병에 속하는 사람
  2. 복수심을 가진 자,
  3. 분명한 동기없이 불지르는,
-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3번째

에 속하는 사람이 방화광(狂)이다. 순수하게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

### 임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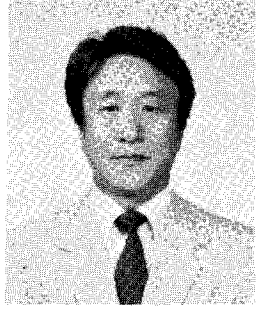
아직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정신과에 입원한 사람들이거나 범법으로 형무소에 갇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는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대개 남자들이고 그들의 90%는 몇번씩 반복했다는 보고이고 19세기까지 알려진 보고들 즉 대개가 여자들이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보고이다.

아이들이 불지르는데는 남녀차이가 없다. 지능이 정상보다는 약간 낮다는 연구도 있고 저능아가 불지른 경우도 있다.

불지른 사람이 화재경보를 울려주는 예도 있고 미국에서 한때 화재가 된 예는 소방관이 불지르고 제일 빨리 화재현장에 뛰어가서 잘했다고 상을 타곤 하다가 그런 사실이 발각된 경우가 있다.

방화광은 불난 자리에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수가 보통이다. 그들은 불나는 것을 보면서 강렬한 성적흥분을 한다는



문 홍 세 /  
 이대의대의래교수  
 문신경정신과의원

보고도 있으며 몇예에서는 불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기가 지른 불에 오줌을 깔기는 병적 행위도 있다. 불지르는 사람중에 알콜 중독자가 많다는 임상보고도 있으나 그 연구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없어서 가정문제가 커져 있는 예가 허다했다. 그러나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다.

방화자는 어렸을 때, 말썽쟁이, 가출, 사춘기반항등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였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으로 되버린 사람들에게서 흔히 본다고 한다. 재미있는 현상은 확실히 화끈하게 반항한 사람들보다는 희미하게 어물어물 비껴나가면서 반사회적이었던 사람들에서 방화자의 발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불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행태를 보고 방화의 심리속에는 성적(性的)인 뿌리를 둔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오줌싸개와 방화를 연결시켜서 불에 오줌을 누우면 충동이 가라앉는다고 추정했다.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싣다는 우리말도 있다.) 본능은 문화를 거부한다는 그의 일반적인 이론과 맞는다.

배뇨의 쾌감과 불을 연결시키는 이론에 무리가 있음도 사실이라서 그후의 많은 학자들은 “불은 성애적인 것과 공격성의 발달의 여러가지 정신 구조적인 수준을 상징화한다”라고 말한다. 사랑을 못받아서 화김에 불지른다 라고 설명하는게 옳다는 주장이다.

「화김에 서망질」도 불은 불이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가정적 열등감이나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때 분통을 내지르는 여러가지 형태중의 하나일 뿐일 수도 있다.

가출, 물건훔치기(습관적 또는 충동적), 불지르기, 습관적 노름질,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도 참을 수 없는 충동적 행위이고 그중에 방화도 한몫 킌다. 강박적인 불질밧에는 어둡고 무거운 우울증이 깔려 있기도 하다.

어려서 동물학대, 오줌싸개, 불장난 이 세가지는 서로 짝이 되어 있다 한다. 즉 화(火) 또는 잔인성은 커가는 동안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분풀이 또는 잔인성의 표현으로 방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지르는 사람의 과거력을 들여다보면 불지르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의 과거력속에 현격히 오줌싸개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있다.

# 의학 에세이



사례연구를 해보면 방화광의 부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화는 그들 인생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지르는 상징적 의미는, 없어진 아버지가 구원자로서 집으로 돌아와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징적으로 불을 꺼주고 불안한 실존(實存)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소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불났으니 아버지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오고 불안하고 그래서 또 불을 질러봐도 구원이 없다는 해석이다.

또 재미있는 보고는 양친(兩親)의 부정(不貞)을 보고 분노한다는 해석인데 실제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해서 양친중 한쪽과 사는 사례가 많았다는 보고이나 다른 많은 요인을 분석해가는 동안 꼭 그렇다고 결론되어지지는 않고 있다.

## 치 료

임상진단을 다른 각도로 해둘 필요가 있다. 정신분열병인가, 정동장애인가, 행동장애인가, 관심결여장애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지면 그 진단에 따라 치료가 결정

되어지는 것은 정신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서는 그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적어서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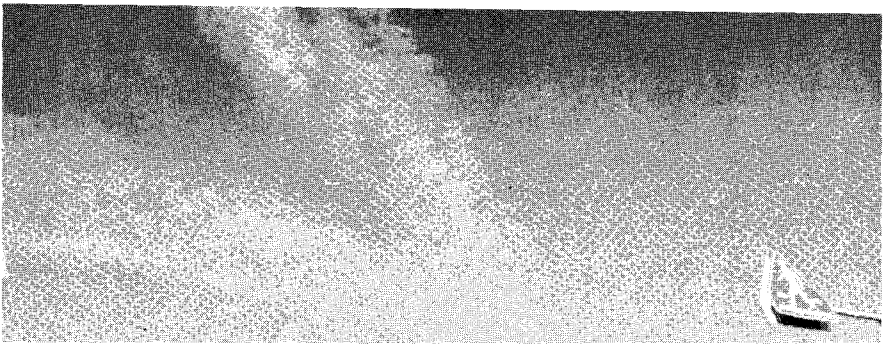
또 정신치료를 받는 많은 사례는 자기반성, 자기성찰(省察)을 하려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치료가 시작되는데 이들 방화광들은 공격적이기만 해서 분석치료의 기본이 안되어 치료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예방에 있고 더 이상의 방화는 못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술을 못마시게 하거나 충동을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적 약물을 투여해 볼지도 하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단죄를 내리느냐 하는데에는 아직 결정적인 것이 없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화광 이외의 예기치 못하게 폭발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장애(간간히 간질병이 섞여 있을 수 있는)나, 아무 이유없이 사람에게 충질을 하거나 자살하는 사람, 까닭없이 주먹질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충동을 제어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본인은 말할 것 없고 이웃이나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염려를 끼친다.

모든 증상은 예방에 있고 그 예방은,



문제가 개개인의 어린시절의 양육방식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애를 사랑, 관심, 건강한 관계, 부모의 인격, 대화의 총화로서 잘 키워낼 때 예방이 가능하다. 발달과정중 잘못되어 있음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교정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

오줌싸개의 예를 들어보자.

한 환자가 20세까지 오줌을 지렸다. 그는 어려서 엄마의 일관성없는 양육을 받았다. 그의 엄마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화를 아이에게 직접 퍼부어왔다. 자기가 화나면 애 젖먹이다가 애를 내동댕이쳤고 때로는 젖을 억지로 물리고 애가 저항하면 때리면서까지 젖을 먹이기를 그가 8세 될 때까지 하였다. 4살까지는 오줌을 잘 조절했는데 어떤 순간에 오줌을 싸는 것으로 반항했고 그러던 애에게 키스고 동리에서 소금받아 오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받았다. 때는 더 극성스러워지고 엄마의 학대는 극심한 가운데 엄마의 젖을 탐하게 되고 매를 맞으면서라도 젖을 빨면 다소 받아들여지는 맛이 있어서 젖을 탐닉하였다. 결혼 후에 마누라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젖대신 술에 탐닉하게 되고 밖으로는 검손, 집에서는 폭군이고 **뻑!** 신경질이 오르면 불은 지

르지 않았지만 머리칼이 타버릴 것 같은 열화(熱火)를 느꼈다.

그순간에는 사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동물학대, 오줌싸기, 방화로 연결지워지는 적개심을 볼 수 있다. 치료는 그런 상황, 감정의 이해 및 이에 따르는 자아의 힘(제어하는 힘)이 커지면서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 한에는 단순한 오줌싸게 치료 예이다.

3자매가운데 2째가 오줌을 싸대서 찾아왔다. 정황으로 보아 2째애가 엄마의 관심에서 빠져 있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매일 직접 비타민을 아침 저녁으로 입에 넣어주라 해서 그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3일만에 오줌이 그쳤다. 아주 일찍이 사랑과 관심을 주어서 빨리 효과를 본 가벼운 예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예에서 일관성있고 성실하고 상대를 무조건 존중하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할 때 방화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본다.

기술적으로는 억압된 감정을 표현시키나 대화로서 하게 하지 결코 유리창 한 장이라도 깨게 해서 안되고 화염병이나 방화하는 선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이다. †